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뒤 의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발 뗏지만...협치 '미지수'

국회 원구성 타결 이후 정국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 9일 원 구성을 마친 후 그 동안의 교착 국면을 넘어 20대 국회의 화두인 '협치'를 구현할 것인지 주목된다.

청와대도 지난 8일 정무수석 교체 등 조직개편을 단행,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야권에도 대화의 메시지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는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국회가 오는 13일 정식으로 개원하면 우리나라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해소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타결과 관련, "(서로) 과감하게 양보해 원 구성을 정상화했다"며 "더민주가 원내 1당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해, 협치를 위한 결단을 강조한 바 있다.

세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제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 타결과 관련, "'정지에 완성은 없다'는 게 저의 정치적 신념 중 하나"라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원 구성 협상을 통해)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개원은 당리당락에 매달려 서로 반대만 하는 낡은 정치 대신에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며 협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협치 정국이 도래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 앞에 놓인 장애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

靑, 정무수석 교체 등 개편

朴 대통령 개원 연설 주목
국회법·세월호·노동법...
여야 대치 부를 뇌관 수두룩

당장,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절차에 돌입할 경우 20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다시 같은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가 이미 종료된 이상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시점에서 자동 폐기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야권 공조로 어버이연합 의혹, 범초버리 의혹, 백남기 씨 물대포 사고 등 청와대와 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도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 협치의 화두 위에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는 상시청문회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문제, 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법안 및 경제활성화법안 등 여야 간의 이견차가 큰 핵심 쟁점이 산적해 있다.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야권의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되고 있어 경색 및 교착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

당장,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절차에 돌입할 경우 20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다시 같은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가 이미 종료된 이상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시점에서 자동 폐기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야권 공조로 어버이연합 의혹, 범초버리 의혹, 백남기 씨 물대포 사고 등 청와대와 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도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 협치의 화두 위에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의 '밀당'...막힌 원구성 협상 뚫고 국민의당에 실속 안겼다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고 9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한 결과, 사실상 제3당인 국민의당이 최종 승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3당 체제 하에서 캐스팅 보트를 친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1, 2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실리를 챙긴 때문이란 평가가 일반적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야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를 차지한 데 이어 일차 상임위원장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두 자리를 쟁겼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은 야권의 심장인 광주지역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두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이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그간 국회의장직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밀당'(밀고 당기기)을 하며 실익을 쟁겼다. 처음에는 더민주 편

을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직을 여당에 줄 수도 있다"며 판을 흔들기도 했다. 또 여야 후보에 대한 자유투표 제안으로 국면 전환을 주도했고, 세비 반납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민주 이상호 원내대표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협상력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20대 국회 의장단 인터뷰·프로필

"전제·감시 넘어 책임도 함께 지는 국회 만들 것"

정세균 국회의장
DJ 권유로 정계 입문한 6선
은화한 성품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지내는 등 17년간 샐러리맨 생활을 했다. 이후 쌍용그룹에서 미국 주재원으로 일하던 중 김대중 전 대통령 측으로 부터 제안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했으며, 19대 때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5선에 성공했다. 정 의장은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종로로 출마한 가운데 여론의 거물급 대선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을 꺾으면서 6선에 올랐다.

정 의장은 수락 연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국회도 정부 이상으로 책임의무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견제하고 감시만 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책임도 함께 지는 협치의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금까지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조정자'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서 "의장으로서 갈등 관리와 사회통합의 촉매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집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짜 버려야 할 특권은 과감히 버

출생: 전북 진안
학력: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과, 미 뉴욕대 행정대학원, 미 페퍼디인대 대학원 경영학과, 경희대 경영학박사 전북대 명예 정치학박사
경력: -산업자원부 장관 -제 15·16·17·18·19·20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의장
당적: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리고 국민이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국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구의원 16년만의 부의장 "3당체제 국회...협치와 소통 노력하겠다"

박주선 국회부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제1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검찰의 요직을 거친 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보성·화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 여의도에 입성했다. 17대 총선에서는 고베를 마셨으나 이후 18대 총선에서는 광주 동구로 지역구를 옮겨 20대까지 내리 승리를 거둔 4선 의원이다.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맡은 것은 지난 15대 국회 김봉호 의원 이후 16년만이다.

그는 1999년 옷로비 사건과 2000년 나라중금 사건 등 모두 3번 구속됐으나 3번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2012년 '동정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네 번째 구속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으며 '불사조'란 별명을 얻었다.

박 부의장은 선출 직후 "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봉산개도 우수개(逢山開道 遇水架橋)'의 각오로 협치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인 20대 국회는 협치를 통한 생산적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출생: 전남 보성
학력: 광주고, 서울대 법학과-대학원 법학과 수료,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경력: -제 16·18·19·20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당 최고위원
당적: 국민의당

국회,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

서울대총학생회장·방송기자 출신 5선 "국회 더 치열한 논쟁과 토론의 장 돼야"

심재철 국회부의장

심재철 국회의부의장은 방송 기자 출신의 5선 의원이다.

심 부의장은 지난 1980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 학생 운동을 하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5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1983년 12월 특별복권됐다. 또 영어교사로 일하기도 했으며 1988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1996년 신한국민 부대원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경기도 안양 동안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5선에 성공했다.

한이(천이명박)계 인사인 심 부의장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심 부의장은 선출 후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있는 속의 민주주의의 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20대 국회는 합리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더 적극적이고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속의(熟議) 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 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와 사회의 급격한

출생: 광주
학력: 광주 제일고,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사회 복지학과
경력: -제 16·17·18·19·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당적: 새누리당

변화를 협치의 틀로 거듭 생각하고 고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건전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가격 공개!"

8년전 가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식 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음 식 비	밥	60인분	60,000	고사리나물	3k	45,000	동태+애호박전	4k	96,000
	육개장	60인분	114,000	표고버섯나물	3k	54,000	초고추장(직접만들)	1병	15,000
	최고기무국	60인분	114,000	파리고추멸치조림	3k	78,000	양념새우젓(국산)	1k	15,000
	복어무채국	60인분	108,000	명태코다리조림	4k	88,000	인절미	6k(3되)	54,000
	된장국(국산검은콩)	60인분	96,000	오이도라지무침	4k	84,000	기피인절미	6k(3되)	57,000
	배추김치(국산)	5k	57,500	홍어회무침	4k	104,000	꿀떡/절편	6k(3되)	45,000
	도라지나물	3k	45,000	홍어사시미	4k	120,000			
	새송이나물	3k	54,000	돼지삼겹(수입)씻기	5k	105,000			
	취나물(계절)	3k	54,000	돼지삼겹(국내)씻기	5k	190,000			
	장 례 용 품 비	0.6오동관	1개	200,000	적출물및음식물처리비용	2회	100,000	향/완장(세트)	1개
수외(화장)		1별	200,000	수세복	1별	30,000	맷배	1회	150,000
초렴비		1회	100,000	액자리본(고급)	1개	5,000	입관용품	세트	150,000
안치실		1회	100,000	향위패	1개	20,000	양초(대)	1개	10,000
영습비		1회	300,000	발인세트	세트	80,000	여성복	1별	18,000
영실임대료		상조	250,000	부위록	1권	15,000	넥타이	1개	3,000
주류·음료		소주 1,500 / 맥주 1,600 / 콜라, 사이타 700							

맛과 품질과 중량을 반드시 비교해 주십시오

- 전 빈소 전자저울 비치로 음식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 판매 즉시 전산전표 발행으로 실시간 장례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린장례식장

www.greenfuneral.co.kr

Tel. 062)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 (문흥동 876-17)

그린 은,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고귀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린에서 상을 치루시면, 전국 어디서나 문상객이 찾아오기 편리하며, 쾌적한 접객실, 맛있는 음식, 품격있는 행사와 의전으로 고인에 대한 예와 품격을 높이고, **장례비용은 대폭 절감하여 상주님께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